창간호 www.thevoiceofus.co.kr

2021
02

정세균 국무총리
창간 특별인터뷰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영상

지방정부 단체장
지방의회 의장 영상

지방정부

분권, 중앙과 지방의 Bridge QR전문지

tvU
The voice of us

정가 7,700원
02
9 772765 253007
ISSN 2765-253X

지금까지 이런 시스템은 없었다! 137억 절감해 대통령상 수상한 비결은?

243개 광역 ·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 무려 225곳, 92.59%에 달하는 극악의 지원률을 보인 '지방재정 우수사례' 분야에서 당당히 대통령상을 따낸 수원시의 비결을 전격 공개한다.

취재 이영재 기자

예산 문제 극복하고 225개 지자체 중 1위

예산·회계·인사·복무·급여 등 ERP(전사적 자원 관리,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통합 관련 이슈는 행정 분야에서 오래된 과제다. 필요성을 인지하면서도 예산과 인력이라는 양대산맥에 가로막혀 제대로 진행된 적 없던 사업을 수원시 정보통신과(과장 장수석)가 전국 최초로 해냈다.

"협업기관(일반적으로 '산하기관'이라고 통칭하지만 수원시는 협업기관으로 용어를 바꿨다) ERP 통합은 예전부터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실 '예산'이 문제였습니다. 마침 시장님도 회의 때 협업기관 업무 통합을 검토해보라고 지시하셔서 탄력을 받나 싶었는데, 예산이란 문제가 역시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추진할 방법을 찾아보니 길이 열렸습니다." (장수석 정보통신과장)

때마침 작년 6월, 과학기술정보통신 공모사업 모집이 시작됐고 천운이 따른 듯 수원시의 '예산 · 회계 통합시스템 구축' 사업이 선정돼 전액 국비로 추진하게 된다.

하지만 난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공모사업의 지원금 대비 실제 사업 비용이 예상보다 너무 높았다. 기존 방식으로 시도해선 안 되겠다는 판단이 설 수밖에 없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다른 시 · 군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분석 조사를 해봤습니다. 경기도청에서도 몇 년 전에 20억을 들여서 하려고 했다가 중간에 포기할 정도로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저희는 '클라우드' 방식에서 그 해법을… .(QR)" (장수석 과장)

전통적으로 업무를 전산화한다면 하드웨어, 데이터베이스, (보안 관련) 소프트웨어, 그리고 새로 만들어 도입할 애플리케이션 등이 필요하다.

여기서 관건은 새로 만드는 애플리케이션보다 오히려 운영환경을 설정하는 하드웨어 · 데이터베이스 · 소프트웨어 구축에 예산 70% 정도가 투여된다는 점. 수원시는 이 부분을 민간 업체인 씨앤에프시스템(대표 박정수)의 협업을 통해 해결했다.

민간기업으로는 국내 최초로 공공기관 재정 시스템을 전담하고 있는 씨앤에프시스템의 박정수 대표이사는 "수원시에서 기관별 계정만 추가하면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사스(SaaS: Software as a Service) 클라우드 방식을 도입해 통합 업무환경 구축에 성공한 사례"라고 전했다.

* 자세한 내용은 우측 QR코드를 찍어서 보세요.

조청식 수원시 제1부시장이 2020년 9월 17일 수원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협업기관 예산회계 통합관리 서비스 구축 착수보고회'를 주재했다.

수원시의 대통령상 수상에 큰 역할을 한 장수석 정보통신과장은 "올해는 인사 · 복무 · 급여 등 나머지 3개 시스템을 수원시 비용(2억 2,000만 원)을 들여 모두 통합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